

긴급 진단 제주도 공기업 2020년 경영 성과 분석 (상) 제주개발공사

코로나 여파 매출·당기순이익 함께 줄어

삼다수·음료·감귤가공사업 등 매출 전년보다 감소
 매입임대주택 운영 확대로 개발사업부문은 증가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원기관에 매년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제주도가 공익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원 기관의 경영 실태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해 제주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와 음료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한 '제주개발공사 2020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2942억1222만여원으로 전년도 2972억9366만여원에 비해 30억 8000여만원 감소했다.

제품 매출액은 2914억948만여원으로, 전년도 2951억9081만여원보다 37억 8000만원이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개발공사 매출액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다수의 판매량은 전년도 대비 1만7397t이 증가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야외활동 감소로 kg당 평균 판매단가가 높은 0.5ℓ와 직공급 판매비중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29억원(1.01%)이나 감소했다.

음료사업과 감귤 가공사업 매출액도 감소했다. 지난해 음료사업 매출액은 29억원으로 전년도 37억원 대비 21.9% 감소했다.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2019년 -14억1800만원에서 2020년 -18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적자폭이 증가(4억2200만원)했다.

감귤가공사업은 2020년 비상품감귤의 시장 격리를 통한 감귤 가격안정을 위해 전년도 수매량 3만5871t 대비 93% 증가한 6만9378t의 비상품 감귤을 수매해 1812t의 감귤농축

액을 생산했다. 하지만 감귤가공사업 매출액은 62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62억 2900만원 대비 1100만원이나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019년 -57억 9200만원에서 2020년 -69억7200만원으로 적자폭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반해 개발사업 부문은 매출액이 증가했다. 공사는 매입임대주택 695호, 행복주택 129호 등을 임대·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와 율령동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6억7000만원 늘었다.

제주개발공사의 전체매출 총이익은 전년도 1729억6272만원보다 64억5000만원이 감소한 1665억607만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당기 순이익도

508억6525만3972원으로 전년도 6830억272만216원보다 174억3500만원 줄었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특별기부금 200억원을 제주도에 지원하면서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업외 비용으로 들어간 이 기부금을 제외할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60억원 정도로 전년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금계국의 황금빛 향연 높은 기온과 함께 며칠 비가 오락가락 하더니 노란 금계국이 활짝 피어났다. 17일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도로를 지나 는 라이더들이 신기한 듯 금계국을 바라보고 있다. 금계국은 국화과의 한해살이 또는 두해살이 풀이다. 강희만기자

지역내 확진자 가족 간 n차 감염 이어져

휴일 16일 15명, 17일 2명 신규 확진... 누적 888명

제주지역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재차 두자릿수에 접어들었다. 가족 간 감염 및 제주국제대학교 레슬링부 관련 확진이 이어지는 등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

난 16일 15명(제주 872-886번)에 이어 17일 2명(887-888번)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새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888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달 들어 174명이 확진된 가운데 이중 73%에 해당

하는 127명이 제주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규 확진자 35.5%는 대학 운동부 관련으로, 확진자 수만 62명에 이른다.

>>2면에 계속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 코로나19
 17일 18시 기준 **누적 확진 888**

2021년 한라일보 시민기자 출범



고성봉



김남기



김미성

2021년 한라일보 시민기자들이 독자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한라일보 시민기자는 각계각층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면서 한라일보 독자들에게 보다 더 친밀하고, 생생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특히 시민 저널리즘에 맞춰 주민 밀착형 기사를 발굴해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 이웃의 이야기 등을 소개하게 될 2021 한라일보 시민기자들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한라일보 시민기자 명단.

고성봉, 김남기, 김미성, 김성훈, 김요범, 김창환, 김원순, 김태수, 김현철, 문명숙, 오창현, 한원택.



김성훈



김요범



김원순



김창환



김태수



김현철



문명숙



오창현



한원택

“무분별 정비로 생태 보물 원형 훼손”

한라일보·(주)제주와미래연구소 공동 토론회

제주도가 흉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이 하천 고유 기능과 원형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하천환경과 조화되는 정비공사, 치수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소는 공동기획의 일환으로 '천천 하천 정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지난 13일 제주와미래연구소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부남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장, 송창우 제주와미래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제주 하천정비 계획 및 현재 진행 상황 ▷천미천 하천정비 수해 예방 효과 여부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조천읍 교래리 뚝배름 부근에서 발원해 구좌

와 성산, 표선면 등 4개의 읍·면에 걸쳐 흐르는 천미천에서의 공사에 대한 토론회가 펼쳐졌다.

이영웅 처장은 “하천정비공사 사업 구간 설정에 있어 공사 필요성이 낮은 구간도 사업 정비 대상에 포함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하천 내 암반이나 물웅덩이 자체만으로도 담수 기능이 있는데, 특히 포크레인이 하천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등의 이유로 하천의 원형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남기 과장은 “가급적 하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서서히 하천환경과 조화되는 치수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19일 석가탄신일 신문 쉽니다

이룸갤러리

개관기념 및 가정의달 맞이 소장전

한성훈 - 천지창조

<p>김기창 - 응시</p>	<p>엄혜란 - 물고기 노는 달항아리 우주의 기운을 품다</p>	<p>김선희 - 당신이 오늘은 꽃이에요.</p>	<p>김점선 - 꽃과 말</p>
-----------------	-------------------------------------	----------------------------	-------------------

기간. 2021. 05. 05 ~ 06. 13 장소. 이룸갤러리

운영시간. 매일 10:00 ~ 22:00 (일요일 14:00 ~ 22:00) 홈페이지. www.irumgallery.com 문의. 010-9882-8119

초대의 말씀 | 현시대의 감정과 문화를 현대미술작품으로 표현해내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소통하는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제주지역과 국내외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발견하고, 보존하며, 널리 알리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소중한 고견 늘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담 이희숙 관장 올림

주요전시작품 | 김기창 - '응시' 김선희 - '당신이 오늘은 꽃이에요' 김점선 - '꽃과 말' 등

엄혜란 - '물고기 노는 달항아리 우주의 기운을 품다' 천경자 -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판화 등

최예태 - '붉은 산의 한타지' 등

한성훈 - '천지창조'

이룸갤러리

AD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827-1, 2층

PHONE. 070-7795-5000

E-MAIL. irumgallery@naver.com